

71年 民間經濟白書

抄錄 I

科學技術과 産業은 夫婦와같은 關係에 있다. 집안살림이 夫婦의 協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듯이 科學技術은 産業隆盛의 絕對的인 要素이며 따라서 産業人은 科學技術開發에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科學技術人은 産業經濟의 動向을 銳意 注視해야 하겠기에 여기 '71年民間經濟白書(全國經濟人聯合會·經濟技術調查 센터 發行)의 抄錄을 收錄하는 바이다.

~編 輯 部

企業健全化와 適正成長의 調和

'71年의 經濟는 비록 量的인 成長 추세는 그대로 지속하였으나 그 內實이 企業財務構造의 改善적악화, 在庫增加—過當競爭의 企業收支減退, 그리고 消費財產業과 資本財工業의 斷需의 産業構造乖離의 深化 등으로 顯在化하기 시작하는 한편 韓國經濟의 대의 의존 증대가 여기에 加壓함으로써 우선 안으로 企業經營健全化라는 측면에서 財政金融 投資政策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밖으로 수출의 稼得率提高와 함께 전반적인 輸入抑制을 본격적으로 고려치 않으면 안될 課題를 72年 經濟으로 移越시켰다.

71年의 總輸入規模는 23.9億弗에 달하며 輸入 赤字幅은 13.2억弗(通關基準)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經常去來上의 不均衡은 수입의 主宗상품이 糧穀, 原油, 木材 그리고 機械施設財 등으로 韓國經濟의 확대 성장에 부수한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先後進國을 막론한 輸出 一邊的對外競爭與件, 先進國의 對後進國 資源원조의 退潮傾向등에 反한 今後 우리 外資償還의 증가, 長短期資本導入에 의한 국제 수지 균형 유지의 불안정등을 고려한다면 71년에 보인 국제 수지의 불균형상은 韓國 經濟의 대외균형 문제를 전반적인 産業體質과 기업경영 면에

서 재검토해야 할 課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課題 해결의 基本的인 視角은 國際競爭과 國際分業의 내입한 原則에 따라 産業構造를 개편하는 作業에서부터 출발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1971年의 物價動態는 상반기의 소비적 有效需要增大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緊縮政策이 실시된 70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安定된 都賣物價 8.6%, 서울 消費者物價 11.9%의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연중 換率引上和 輸入商品價格의 9.1% 上昇, 商去來價政策의 계속, 그리고 일부 規制商品價格의 인상조정, 여기에 勞賃上昇, 高稅金, 高金制등 코스트푸시 要因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물가의 異常現象을 보였음은 하반기의 企業收支惡化와 더불어 새로운 양상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71年 물가 구조의 特性은 市場原理에 입각한 가격의 자율 기능의 장기간의 역제가 이제 企業沈滯과 더불어 단층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게 하는 만큼 물가의 長期安定을 위해서는 價格에 대한 企業經營의 伸縮性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현실화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異常景氣와 企業適應力의 評價

1. 産業部門間 斷層의 沈化和 市場構造의 變質

年中에 있어서도 總投資는 25.2%라는 比較的 높은 투자를 이룩하여 일반적 豫測을 뒤엎고 10.2%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결과하여 成長템포의 底力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提起된 課題이었던 産業의 質的改善에는 오히려 미흡하여 아직도 産業間 關聯效果의 斷層의 樣相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農業과 工業間의 關聯效果의 미흡은 勿論 工業의 原料産業과 製品産業間의 상호 단층의 尙存은 韓國工業의 前公方關聯效果의 沈化를 기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韓國産業의 對外依存度를 構造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關聯産業들의 經濟政策은 勿論 景氣變動에 민감한 영향권내에서 "후리헨드"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다수의 輸入代替産業을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海外原料依存度는 依然 높았고 이것이 産業構造적으로 收入增大를 불러 일으키게까지 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産業間 關聯效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民間經濟界에서 數年來 주장하듯이 補正投資가 보다 더 積極화 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細分投資로 因한 規模經濟의 미흡은 끝내는 産業間 過當競爭을 가져와

市場狀況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종래의 「셀러스 마아케트」에서 「바이어스 마아케트」로 國內市場의 構造的變化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아진다.

이와같은 현상은 적어도 産業部門別 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經濟循環의 隘路를 형성하여 國民經濟活動에 경화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10.2%의 高成長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15.7%의 在庫投資의 增加를 보임으로써 高度成長 裏面에 그늘진 단면을 나타내 주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市場性格의 변화에 더하여 細分投資로 받아들였던 生産單位의 過少化와 제한된 市場을 대상으로 하였던 데서 연유한 稼動率의 底下는 生産原價의 重壓을 가중화시키므로써 市況의 둔화를 가졌던 流動性 規制는 有效需要의 減退로 불황에 相乘作用을 하게 되었다.

年中에 있었던 企業間 統合調整의 움직임과 業種 및 産業間 調整間 系列化의 시도는 규모의 適正化와 關聯度의 有機化로 生産原價高를 切下하고 大量生産의 利로 對外競爭을 높이려는 合理化作業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판매 카르텔 形成의 試圖로 過少需要에서 오는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으나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그 결과 市場性格의 變轉에서 오는 不況克服을 위한 有効한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는 産業의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景氣調節策이 동시에 進行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構造的 불황의 顯在現象은 결과적으로 民間部門의 投資活動의 留保現象을 보이게 하였다.

이와같은 現象은 新規投資를 억제하려는 投資誘導策에도 기인하지만 景氣展望의 불투명도 연유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投資財源의 健全調達을 위한 努力의 하나로 평가되겠지만 投資事業에 對한 內資調達방법에 대한 嚴格化의 시도는 總量的인 면에서 投資의 低調相을 유발한 一國이 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民間投資 特히 民間建設投資는 -7.2%

를 보여 前年度 18.8%와 좋은 對照를 보였고 政府建設投資는 前年度 -8.6%에 비해 1.4%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政府投資의 增加로 不油化學 및 綜合製鐵 등 主要프로젝트의 建設計劃期間目標에 맞추기 위한 集中的 投資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投資의 編實化는 景氣의 진작이나 産業構造의 質的改善을 위한 課題는 宿題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向後의 經濟開發의 政策課題는 産業間 有機度의 제고로 투자 的 효율도를 높이고 附加價値의 海外過多流出을 방지하기 위한 補正投資의 확산화로 産業의 구조적인 海外依存度를 경감해 가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와 企業收支 惡化

最近 2~3年 동안 우리 나라 인플레이 類型은 디맨드 플로부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로 크게 변질되었다. 즉 연중 原價上昇要因만 하더라도 연 두차례에 걸친 石油類價格 45% 引上和 石炭價格 15% 引上, 일시적인 換率 13% 引上和 계속되는 上向操作, 高金利 特히 租稅負擔의 한계를 초과한 稅金攻勢, 政府未收買價格 25% 引上和 높은 賃金上昇率 등은 인플레이 加速化의 原因을 형성하였고 한편으로는 企業經營惡化의 주요 原因이 되었다.

따라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를 유발했고 또 이를 계속케 하는 한 食料品價格의 急騰과 함께 工產品價格의 均衡化로의 움직임은 物價上昇의 壓力要因으로 顯在化될 것이며 나아가 價格構造의 乖離는 正을 불가피케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70年 企業의 總資本利益率이 2.49%, 自己資本利益率 10.67%가 금년에 들어와서 急降下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工業品價格의 抑制策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며 이를 억제키 위한 流動性收縮一邊倒의 物價政策은 새로운 價格機能回復의 방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企業의 擔稅能力을 超過한 租稅, 巨視的 高成長下에 微視的 不況이라는

異常景氣극면과 더불어 15.8%로 高揚된 租稅負擔率은 예년에 없던 심각한 租稅抵抗을 야기하였다. 즉 71年度 閉鎖期 현재 300億원의 조상징수에도 불구하고 70億원의 稅收 결함을 면치 못함으로써 稅收目標과 國民擔稅能力間의 현실적 乖離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68년의 內國稅收增加率 50.8%를 피크로 매년 큰 무리없이 30% 이상의 對前年比 稅收增加가 가능하였던 從來의 현실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71년도 하반기의 經濟成長趨勢의 鈍化 및 그동안 계속되어 온 企業收益의 低下나 69年말 이래의 緊縮政策에 의한 新規稅本의 減縮 또는 陰性稅源發掘의 한계를 들 수 있겠으나 보다 根源的으로는 年年 계속되어 온 高率의 稅收增加率과 擔稅部門의 附加價値成長率間의 乖離가 그 이상 확대될 수 없는 한계점에 달한 데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기업의 租稅負擔은 더욱 急騰포로 增大되어 왔음을 짐작키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총량적인 施設投資의 累積과 더불어 단위 기업의 成長率은 後發企業의 생산 및 市場參與로 總體經濟成長率에 미달하였을 것은 물론이나 租稅增加分 徵收에 제1차적 대상이 企業體이었음은 경험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租稅負擔壓迫은 他擔稅階層보다 더욱 심각하였는 바 그위에 1971年 2월에는 기업의 誠實納稅申告基準을 前年 決定稅額의 130% 이상으로 公고한바 있다. 71年中 이와 같은 法人稅의 증가는 전반적인 景氣鎮靜化傾向 및 기타 要因에 의한 企業收支壓迫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상대적 부담을 강요하였다. 特히 製造業部門은 賃金の 持續的 上昇 石油類價 및 鐵道料金引上, 6.28 換率引上年 未國際通貨調整에 따른 償還負擔의 증가와 더불어 一般都賣物價上昇과 製品의 生産者販賣價格間의 乖離擴大 高水準의 金利負擔 등 다방면으로부터 加重되는 經濟隘路로 기업 수지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擔稅能力이 크게 위축되었다.